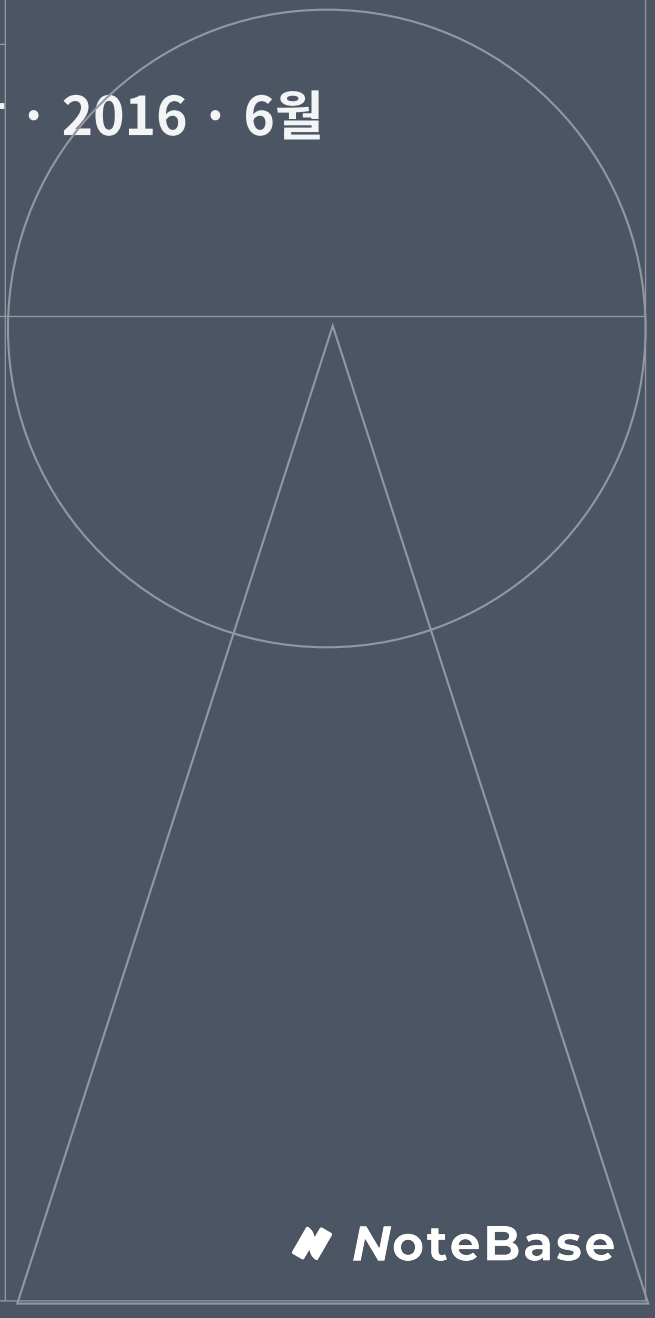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6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6 · 6월

문 1. 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및 연차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③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매출채권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한다.

④ 수익과 비용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상에 특별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주석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무제표 표시원칙에서 유동성 배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범위, 상계표시와 충당금 차감표시의 구별, 특별손익 표시 금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동성 배열은 재무상태표 표시방법의 하나일 뿐 항상 강제되는 방식은 아니다.
상계표시는 서로 다른 자산·부채나 수익·비용을 상호 차감해 순액만 보이는 것이고, 대손충당금 차감은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을 평가충당금으로 조정하는 표시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지 연차보고서 전체에 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어떤 수익·비용 항목도 특별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고 주석으로 따로 특별손익 항목을 두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반드시 유동성 순서에 따라"이다. 실제로는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의 성격에 따라 유동성 순서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 순서 배열은 선택 가능한 방식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 규칙은 아니다.
② X. 틀린 부분은 "재무제표 및 연차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적용"이다. 실제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다. 연차보고서 전체의 모든 서술과 공시를 통째로 규율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며, 모든 기업이 무조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③ X. 틀린 부분은 "상계표시"이다. 실제로는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보이는 것은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액을 나타내기 위한 차감표시이다. 이는 자산과 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순액만 보이는 상계표시와 다르다.
④ 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특별손익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없다. 주석에서 특별손익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의 "반드시"가 함정이다. 회계기준 문제에서는 원칙, 예외, 적용 대상이 나뉘는데 이를 절대명제로 바꾸면 오답이 되기 쉽다. ③은 순액표시라는 말 때문에 상계표시로 착각하기 쉬우나, 충당금 차감은 같은 자산 계정의 평가조정일 뿐 상호 상계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반드시", "항상" 같은 절대 표현이 있으면 먼저 예외가 허용되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순액표시가 나오면 서로 다른 항목을 상호 차감하는 상계인지, 같은 자산의 평가충당금을 차감하는 것인지 구분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특별손익 분류를 허용하는지 묻는 선지는 금지 원칙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동성 배열은 선택, 충당금 차감은 상계 아님, 특별손익 표시는 금지이다.

NoteBase

문 2. 다음은 (주)서울의 2016년도 비교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한편, (주)서울은 2016년 중에 취득원가 ₩80,000이고 85%를 감가상각한 기계장치를 ₩12,000에 매각하였다. (주)서울이 2016년도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측정할 때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2016.1.1.	2016.12.31.
유형자산	₩215,000	₩35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	₩40,000

① ₩58,000

② ₩68,000

③ ₩70,000

④ ₩78,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형자산 처분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의 롤포워드를 이용해 당기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기초 유형자산 215,000원
-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50,000원
- 기말 유형자산 350,000원
-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40,000원
- 처분자산 취득원가 80,000원
- 처분자산 감가상각 정도 85%
- 처분가액 12,000원

구해야 할 값:
- 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 계산 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주의할 조건:
- 처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 처분가액 12,000원은 장부가액과 같아서 처분손익이 없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감가상각누계액의 변동식은 다음과 같다.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 처분자산 관련 감가상각누계액 + 당기 감가상각비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감가상각비가 직접 주어지지 않았고, 기초·기말 누계액과 처분자산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처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80,000 \times 85\% = 68,000$원이다.
2. 처분자산의 장부가액은 $80,000 - 68,000 = 12,000$원이다.
3. 처분가액도 12,000원이므로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은 없다.
4. 감가상각누계액 변동식에 대입하면 40,000 = 50,000 - 68,000 + 당기 감가상각비이다.
5. 따라서 당기 감가상각비는 58,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감가상각누계액 변동식을 적용하면 당기 감가상각비는 58,000원이다. 간접법에서는 이 비현금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② X
- 68,000원은 처분한 기계장치에 붙어 있던 감가상각누계액일 뿐 당기 전체 감가상각비가 아니다. 틀린 값 68,000원을 고치면 올바르게는 58,000원이다.

③ X
- 70,000원은 기초·기말 잔액만 보고 처분자산 관련 감가상각누계액 제거를 부정확하게 반영할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누계액 변동식을 정확히 적용하면 올바르게는 58,000원이다.

④ X
- 78,000원은 처분가액이나 장부가액 정보를 감가상각비에 섞어 계산한 오답이다. 이 문항에서 처분가액 12,000원은 처분손익이 0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이며, 올바른 감가상각비는 58,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처분자산의 취득원가 80,000원과 감가상각누계액 68,000원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답이 나온다. 또한 처분가액 12,000원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를 감가상각비 계산에 더하거나 빼는 실수를 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처분이 보이면 먼저 처분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손익을 확인한 뒤, 감가상각누계액의 기초·처분·기말 관계식으로 당기 감가상각비를 역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감가상각누계액은 기초 누계액 - 처분 누계액 + 당기 감가상각비 = 기말 누계액의 구조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3. (주)서울의 2016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아래의 표와 같을 때 전기이월 일시적차이가 없다면 (주)서울의 2016년도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단,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18년에 소멸될 예정이며, 기타의 차이는 일시적차이가 아니다. 2016년도 과세소득에 적용할 법인세율은 25%이나, 세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적용할 세율은 20%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00
가산할 일시적차이	(2,000)
기타의 차이	1,000
과세소득	₩ 9,000

① ₩2,650

② ₩2,450

③ ₩2,250

④ ₩1,024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구분하고, 일시적차이는 소멸 시점 세율로 측정한다는 원리를 적용해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 과세소득 9,000, 가산할 일시적차이 2,000, 기타의 차이 1,000이다.
구해야 할 값: 2016년도 법인세비용이다.
주의할 조건: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18년에 소멸되므로 이연법인세는 2018년 적용세율 20%로 측정한다. 기타의 차이는 일시적차이가 아니므로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
당기법인세 = 과세소득 × 당기세율
이연법인세 = 일시적차이 × 소멸시점세율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과세소득이 따로 제시되어 당기법인세를 바로 계산할 수 있고,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미래에 소멸되면서 과세금액을 증가시키므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법인세는 과세소득 9,000에 2016년 세율 25%를 적용해 2,250이다.
2. 가산할 일시적차이 2,000은 미래 가산효과를 가지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만든다. 소멸 시점 세율은 20%이므로 이연법인세는 400이다.
3. 따라서 법인세비용은 2,250 + 400 = 2,650이다.

선지 판단

1번: O. 당기법인세 2,250과 이연법인세 400을 합하면 2,650이므로 맞다.
2번: X. 2,450은 이연법인세를 과소계산한 금액이다. 가산할 일시적차이 2,000 전체에 소멸세율 20%를 적용한 400을 더해야 하므로, 2,450원이 아니라 2,650원이 맞다.
3번: X. 2,250은 과세소득 9,000에 대한 당기법인세만 계산한 값이다. 가산할 일시적차이에서 생기는 이연법인세 400을 누락했으므로, 2,250원이 아니라 2,650원이 맞다.
4번: X. 1,024는 문제의 과세소득과 세율 조건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값이다. 당기법인세만 해도 2,250이므로, 1,024원이 아니라 2,650원이 맞다.

오답 포인트

과세소득 9,000에 25%를 곱한 당기법인세 2,250만 보고 끝내면 3번으로 흐르기 쉽다. 또 일시적차이를 당기세율로 보거나 일부만 반영하면 2번처럼 이연법인세를 과소계산하게 된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기타의 차이 1,000은 일시적차이가 아니라는 점과, 이연법인세는 소멸세율 20%로 측정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무조정형 법인세 문제는 먼저 과세소득으로 당기법인세를 계산하고, 그다음 일시적차이만 따로 골라 소멸 연도 세율로 이연법인세를 계산한 뒤 둘을 합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당기법인세는 당기 과세소득과 당기세율로 계산하고,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에 소멸세율을 적용해 측정한다.

NoteBase

문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③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더라도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의 구성, 작성원칙, 목적, 내부거래 상계 원칙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상계는 서로 대응하는 내부거래 항목을 통합 과정에서 제거하는 처리이다.
통합 작성은 여러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쳐 하나의 재무제표로 만드는 것이다.

핵심 구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상계한다. 따라서 이 문항의 핵심 구분은 '상계하지 아니한다'와 '상계한다'의 대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2번 O: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는 작성원칙에 부합하므로 옳다.
3번 O: 재무제표의 목적은 국가 재정활동에 이해관계를 가진 정보이용자가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옳다.
4번 X: 틀린 표현은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아니한다'이다.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하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올바르게는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4번은 '통합'이라는 단어를 보지 않고 일반적인 총액주의와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총액주의는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통합재무제표 작성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상계는 별개의 원칙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회계기준 문제에서 '통합', '내부거래', '상계'가 함께 나오면 먼저 통합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통합 작성이면 내부거래는 제거 대상으로 보아 상계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통합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를 남기지 않고 상계한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건설계약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며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수익은 인식하지 않고 발생원가만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관련 손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미청구공사의 과목으로 비유동자산으로 보고한다.

④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건설계약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공사미수금으로 보고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건설계약 회계에서 수익 인식 요건, 예상손실의 즉시 인식, 그리고 미청구공사와 공사미수금의 표시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회수가능한 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회수가능성마저 낮으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예상손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미청구공사는 누적발생원가와 인식이익의 합계가 진행청구액을 초과한 경우의 자산이며, 공사미수금은 이미 청구한 금액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수익은 인식하지 않고 발생원가만 비용으로 처리한다. 결과 추정 불가와 회수가능성 부족을 함께 제시한 문장으로 옳다.

② O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면 공사 전반에서 손실이 예상되므로 그 손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장기계약이라도 예상손실은 이연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미청구공사의 과목으로 비유동자산으로 보고한다'이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미청구공사로 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비유동자산이 아니라 유동자산으로 표시한다.

④ O
수행한 공사에 대해 이미 발주자에게 청구까지 마쳤는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공사미수금으로 본다. 이는 미청구공사처럼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라, 청구가 끝난 채권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미청구공사와 공사미수금을 둘 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점이다. ③은 '진행청구액 초과'라는 표현까지는 맞지만 이를 비유동자산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고, ④는 반대로 이미 청구한 채권이라는 점 때문에 공사미수금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건설계약 문제는 먼저 수익 인식이 가능한 상황인지, 예상손실이 있는지, 그리고 금액이 아직 청구 전인지 청구 후 미수인지로 나누어 판단한다. 진행청구액보다 많이 수행했으면 미청구공사, 이미 청구했으나 못 받았으면 공사미수금으로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미청구공사는 아직 덜 청구한 공사자산, 공사미수금은 이미 청구한 미수채권이다.

NoteBase

문 6. (주)서울은 2015년 설립되었으며 2016년에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외부감사를 받는다. (주)서울이 감사를 받기 위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한편,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보기>와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주)서울의 2016년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모든 오류는 중요한 오류이며 법인세는 없다고 가정한다.)

	2015	2016
수정 전 당기순이익	₩100,000	₩150,000

<보기>

2015년 발생 오류

• 기말 재고자산이 ₩10,000 과대계상됨

• 2015.1.1.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20,000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전액 수선비로 계상함(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임)

• 2015.7.1.에 1년분 보험료 ₩6,000을 지출하면서 전액 비용처리하고 기말에 별도의 수정분개를 하지 않음

2016년 발생 오류

• 미지급광고비 ₩5,000을 인식하지 않음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을 인식하지 않음

•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을 과대계상함

① ₩145,000

② ₩148,000

③ ₩152,000

④ ₩154,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기오류의 당기 반대효과와 2016년 발생 오류 중 당기순이익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항목만 골라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정 전 2016년 당기순이익 15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오류수정 후 2016년 당기순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2015년 오류는 2016년에 반대효과가 있는 것만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거래로 처리되는 항목이므로 2016년 당기순이익 계산에서 제외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6 · 6월

사용할 공식

수정 후 2016년 당기순이익 = 수정 전 2016년 당기순이익 + 2015년 오류의 2016년 반대효과 + 2016년 오류 중 손익항목 수정효과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가 묻는 값은 2016년 당기순이익이므로 2015년 오류 전체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손익에 이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만 반영하면 된다. 또한 2016년 오류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 항목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2015년 기말재고자산 10,000원 과대계상은 2016년 기초재고자산 과대계상으로 이어지므로 2016년 매출원가가 10,000원 과대계상된다. 따라서 2016년 당기순이익은 10,000원 증가 수정한다.
2. 2015.1.1 기계장치 20,000원을 전액 수선비 처리했으므로 2016년에 누락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20,000 \div 5 = 4,000$원이므로 2016년 당기순이익은 4,000원 감소 수정한다.
3. 2015.7.1 지급한 1년분 보험료 6,000원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비용 3,000원이 2016년에 귀속된다. 따라서 2016년 당기순이익은 $6,000 \times 6/12 = 3,000$원 감소 수정한다.
4. 2016년 미지급광고비 5,000원 미인식은 당기 비용 누락이므로 2016년 당기순이익을 5,000원 감소 수정한다.
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원 미인식은 당기순이익 항목이 아니고,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원 과대계상도 자본거래이므로 당기순이익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6. 따라서 수정 후 2016년 당기순이익은 $150,000 + 10,000 - 4,000 - 3,000 - 5,000 = 148,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45,000원은 2016년 미지급광고비 5,000원만 반영하고 2015년 오류의 2016년 반대효과 $+10,000 - 4,000 - 3,000 = +3,000$를 빠뜨린 값이다. 올바르게는 2016년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148,000원이다.
② O: 148,000원은 전기오류의 당기 반대효과 +3,000원과 당기 손익오류인 미지급광고비 -5,000원을 정확히 반영한 값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당기순이익 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까지 맞게 처리한 값이다.
③ X: 152,000원은 재고자산 반대효과 +10,000원과 보험료 3,000원, 광고비 5,000원 정도만 반영하고 기계장치의 2016년 감가상각비 4,000원 누락을 놓친 계산이다. 올바르게는 자본적 지출 오분류에 따른 2016년 감가상각비 4,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148,000원이다.
④ X: 154,000원은 2016년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이나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손익항목처럼 섞거나, 기간배분되는 보험료와 미지급광고비를 누락한 계산이다. 올바르게는 손익항목만 추려서 148,000원으로 수정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모든 오류를 한꺼번에 당기순이익에 넣는 데 있다. 전기오류는 2016년에 되돌아오는 효과만 잡아야 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과 자기주식처분이익처럼 당기순이익이 아닌 항목은 애초에 2016년 당기순이익 계산에서 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오류수정 문제는 먼저 전기오류와 당기오류를 나눈다. 그다음 전기오류는 당기 반대효과만 계산하고, 당기오류는 손익계산서 항목인지 자본·기타포괄손익 항목인지부터 구분하면 정답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재고오류는 다음 해에 반대로 뒤집히고, 자본적 지출 오분류는 감가상각으로 이어지며, 선급비용은 기간배분한다. 자기주식처분손익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과 구분한다.

NoteBase

문 7. 다음은 2015년 (주)서울의 원가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2015년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주)서울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수량	직접재료원가 완성도	가공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	1,000	100%	40%
기말재공품	2,000	100%	20%
기초재공품 재료원가	₩10,000		
기초재공품 가공원가	₩6,000		
당기착수량	20,000		
당기완성품 수량	19,000		
당기투입 재료원가	₩240,000		
당기투입 가공원가	₩380,000		

① 직접재료원가: ₩10, 가공원가: ₩15

② 직접재료원가: ₩10, 가공원가: ₩20

③ 직접재료원가: ₩12, 가공원가: ₩15

④ 직접재료원가: ₩12, 가공원가: ₩2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에서 직접재료와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을 구한 뒤 당기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재공품 1,000개, 기말재공품 2,000개, 당기착수 20,000개, 당기완성품 19,000개이다.
직접재료 완성도: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이 모두 100%이다.
가공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 40%, 기말재공품 20%이다.
주의할 조건: 선입선출법이므로 단위당 원가는 당기투입원가만 당기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고, 기초재공품은 이미 투입된 재료 100%를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직접재료 단위당 원가 = 당기투입 재료원가 / 당기 직접재료 완성품환산량이다.
가공 단위당 원가 = 당기투입 가공원가 / 당기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를 분리하고, 당기에 수행한 작업량만으로 당기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당기 완성품 중 당기 착수·완성 수량은 19,000 - 1,000 = 18,000개이다.
2. 직접재료 완성품환산량은 기초재공품 추가분 0개 + 당기 착수·완성 18,000개 + 기말재공품 2,000개 = 20,000개이다.
3.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기초재공품 추가분 $1,000 \times 60\% = 600$개 + 당기 착수·완성 18,000개 + 기말재공품 $2,000 \times 20\% = 400$개 = 19,000개이다.
4. 직접재료 단위당 원가는 240,000원 / 20,000개 = 12원이다.
5. 가공원가 단위당 원가는 380,000원 / 19,000개 = 2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직접재료원가를 10원, 가공원가를 15원으로 본 부분이 모두 틀리다. 선입선출법 계산 결과 직접재료 단위당 원가는 12원, 가공원가 단위당 원가는 20원이다. 올바르게는 직접재료원가 12원, 가공원가 20원이다.
② X: 직접재료원가 10원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직접재료는 기초재공품이 이미 100% 투입된 상태이므로 당기 완성품환산량이 20,000개이고, 당기투입 재료원가 240,000원을 나누면 12원이 나온다. 올바르게는 직접재료원가 12원, 가공원가 20원이다.
③ X: 가공원가 15원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가공원가는 기초재공품 추가가공 600개와 기말재공품 400개를 반영한 완성품환산량 19,000개로 계산하므로 380,000원 / 19,000개 = 20원이다. 올바르게는 직접재료원가 12원, 가공원가 20원이다.
④ O: 직접재료 완성품환산량 20,000개로 계산한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12원이고,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19,000개로 계산한 단위당 가공원가는 20원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기초재공품의 직접재료 완성도가 이미 100%라는 점을 놓치면 재료 완성품환산량을 잘못 잡기 쉽다. 또 가공원가는 기초재공품의 미완성분 60%만 추가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100%로 보거나 아예 제외하면 20원이 아닌 다른 값으로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합원가 계산형 문제는 먼저 선입선출법인지 평균법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기초재공품 추가작업량, 당기 착수·완성분, 기말재공품을 나누어 완성품환산량을 만든 뒤 당기투입원가만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은 추가작업분만, 단위당 원가는 당기투입원가만 계산한다.

NoteBase

문 8. 2015년 (주)서울의 보통주 발행주식수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주)서울의 당기순이익이 ₩2,070,000이라면 기본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은 월할로 하며, 기본주당순이익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일 자	변동내용	발행주식수
2015년 1월 1일	기초	1,500주
2015년 7월 1일	무상증자	400주
2015년 10월 1일	유상증자	400주
2015년 12월 31일	기말	2,300주

① ₩900

② ₩1,035

③ ₩1,150

④ ₩1,25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소급조정하여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당기순이익은 2,070,000원이다.
1월 1일 기초 보통주는 1,500주이다.
7월 1일 무상증자 400주가 있었으므로 그 이전 주식수도 무상증자 후 기준으로 소급조정한다.
10월 1일 유상증자 400주는 그 시점부터 3개월만 가중한다.

사용할 공식

기본주당순이익은 $EPS = \frac{NI}{WASO}$이다.
이 문제에서는 NI는 당기순이익, $WASO$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다.
무상증자는 자원 유입 없이 주식수만 늘어나므로 과거 기간의 주식수도 무상증자 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7월 1일 무상증자 후 주식수는 1,500주 + 400주 = 1,900주이다.
무상증자는 소급조정 대상이므로 1월부터 9월까지는 1,900주로 본다.
10월 1일 유상증자 후 주식수는 2,300주이다.
$WASO = 1,900 \times \frac{9}{12} + 2,300 \times \frac{3}{12} = 2,000$
$EPS = \frac{2,070,000}{2,000} = 1,035$
따라서 기본주당순이익은 1,035원이다.

선지 판단

1번(X): 900원은 기말주식수 2,300주를 그대로 분모에 넣을 때 나오는 값이다. 기본주당순이익의 분모는 기말주식수가 아니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므로 올바르게는 2,000주를 분모로 써 1,035원을 계산한다.
2번(O):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가 2,000주이므로 2,070,000원 ÷ 2,000주 = 1,035원이다.
3번(X): 1,150원은 무상증자 400주를 유상증자처럼 6개월만 가중하여 1,500주 + 400주 $\times \frac{6}{12}$ + 400주 $\times \frac{3}{12}$ = 1,800주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무상증자는 소급조정하므로 올바르게는 1월부터 9월까지 1,900주를 적용해야 한다.
4번(X): 1,250원은 무상증자 소급조정 또는 유상증자 기간가중을 누락하여 분모를 실제 2,000주보다 작게 잡은 오답이다. 주어진 조건을 반영한 올바른 값은 1,035원이다.

오답 포인트

무상증자를 시간가중 대상으로 처리하면 3번처럼 계산된다. 무상증자는 과거 기간 전체를 소급조정하고, 유상증자만 발행일 이후 기간만큼 가중한다는 구분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당이익 문제는 먼저 증자 유형을 구분한 뒤 무상증자는 소급조정, 유상증자는 발행일 이후 기간가중이라는 순서로 분모를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무상증자는 과거도 다시 계산하고, 유상증자는 그때부터 가중한다.

NoteBase

문 9. 2015년 초에 (주)서울은 (주)한양에게 보통주 50주(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공정가치 ₩7,000)를 교부하고 (주)한양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직전에 (주)한양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합병 시 (주)서울이 인식할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은 얼마인가?

합병 직전 ㈜한양의 재무상태표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재고자산	₩200,000	₩250,000	비유동부채	₩100,000	₩100,000
비유동자산	₩300,000	₩300,000	자본금	₩350,000	
			이익잉여금	₩50,000	
합계	₩500,000		합계	₩500,000	

① 영업권 ₩150,000

② 영업권 ₩100,000

③ 염가매수차익 ₩150,000

④ 염가매수차익 ₩1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합병에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영업권인지 염가매수차익인지를 판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서울이 교부한 주식 50주, 주당 공정가치 7,000원, 한양의 재고자산 공정가치 250,000원, 비유동자산 공정가치 300,000원, 비유동부채 공정가치 1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합병 시 인식할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이다.
주의할 조건은 이전대가는 액면금액이 아니라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공정가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FV_{NA} = FV_A - FV_L$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FV_NA-이전대가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합병 회계에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와 취득대가를 비교하여 초과 지급분은 영업권, 반대로 순자산 공정가치가 더 크면 염가매수차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이전대가를 계산하면 50주 × 7,000원 = 350,000원이다.
2. 한양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계산하면 $450,000 = (250,000 + 300,000) - 100,000$ 이다.
3. 비교하면 $100,000 = 450,000 - 350,000$ 이므로 취득대가보다 순자산 공정가치가 더 크다.
4. 따라서 서울은 영업권이 아니라 염가매수차익 100,000원을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영업권 150,000'이 틀렸다. 이전대가 350,000원보다 순자산 공정가치 450,000원이 더 크므로 영업권이 아니라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한다. 올바르게는 '염가매수차익 100,000'이다.
② X: '영업권 100,000'에서 금액은 차이값과 같지만 성격 판단이 틀렸다. 취득대가가 더 작은 경우이므로 영업권이 아니라 염가매수차익으로 본다. 올바르게는 '염가매수차익 100,000'이다.
③ X: '염가매수차익 150,000'에서 금액이 틀렸다. 순자산은 자산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차감한 공정가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450,000원이다. 올바르게는 '염가매수차익 100,000'이다.
④ O: 이전대가 350,000원과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450,000원의 차이는 100,000원이며, 순자산 공정가치가 더 크므로 염가매수차익 100,000원이 맞다.

오답 포인트

액면금액 5,000원에 끌려 이전대가를 250,000원으로 보거나, 자산 공정가치 합계만 보고 부채 100,000원을 빼지 않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또한 차이금액 100,000원을 구해 놓고도 이전대가가 더 작은 상황인데 영업권으로 뒤집어 표시하는 오류가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병 계산형은 먼저 이전대가를 공정가치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공정가치 기준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구한 뒤, 마지막으로 순자산 공정가치와 이전대가의 크기를 비교해 영업권인지 염가매수차익인지 판정한다.

암기 포인트

이전대가 < 순자산 공정가치이면 염가매수차익, 이전대가 > 순자산 공정가치이면 영업권이다.

NoteBase

문 10. 환율변동효과 중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별도의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다.

② 외화거래를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여기서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③ 매 보고기간 말에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이때 외환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며, 해당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기능통화 기준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의 환산 시점, 그리고 환산차이의 인식 위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차이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 환율을 유지하므로 보고기간 말에 새 환산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며, 관련 손익이 기타포괄손익이면 그 안의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외환차이는 별도의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다"는 표현이다. 화폐성 외화항목의 환산차이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것은 일부 예외적 항목이지 일반적인 화폐성 외화항목의 기본 처리이 아니다.
② O: 외화거래의 최초 인식은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능통화 금액으로 기록한다. 여기서 거래일은 거래가 최초로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날이라는 설명도 맞다.
③ O: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계속 유지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바꾸지 않으므로 추가 외환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O: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을 사용한다. 또한 그 비화폐성 항목의 평가손익 자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함께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화폐성항목은 모두 보고기간 말 환율을 쓴다는 점만 기억하고 환산차이의 귀속처를 자본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①의 "기타포괄손익" 문구에 있으며, 화폐성 외화항목의 기본 원칙은 당기손익이라는 점을 놓치면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화폐성항목인지 비화폐성항목인지 구분한 다음, 비화폐성항목이면 역사적원가인지 공정가치인지 다시 나눈다. 그 뒤 환율은 화폐성은 보고기간 말, 역사적원가는 거래일, 공정가치는 공정가치 결정일로 대응시키고, 환산차이의 인식 위치는 관련 손익의 인식 위치와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화폐성은 말일환율·당기손익, 역사적원가는 거래일환율, 공정가치는 평가일환율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1. (주)서울은 2016년 초에 구축물을 ₩100,000에 설치하였는데, 관련 법에 따르면 내용연수 5년 경과 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회사는 5년 후 원상회복에 소요될 원가를 ₩1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금액의 현재가치는 ₩7,000이다. 구축물을 잔존가치 없이 감가상각할 때 구축물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축물의 최초 인식금액은 ₩107,000이다.

②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원가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 ₩3,000은 5년 동안 금융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구축물 취득시점에서 원상회복 의무 ₩7,000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④ 실제 원상회복 시 소요 금액이 ₩10,000을 초과하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복구충당부채의 최초 인식, 현재가치와 미래지급액 차이의 기간 경과 처리, 실제 복구지출 정산 시 손익 인식을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구축물 취득원가: 100,000원
- 5년 후 원상회복 예상지출: 10,000원
- 원상회복의무 현재가치: 7,000원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0원
- 발문: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법적 또는 의제의무로 미래 복구지출이 확정되면 그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현재가치 7,000원과 미래지급액 10,000원의 차이 3,000원은 시간이 지나며 충당부채가 불어나는 할인상각분이므로 금융비용으로 인식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먼저 원상회복의무를 현재가치로 측정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한다. 이후에는 자산에 가산된 7,000원을 포함한 금액을 감가상각하고, 부채는 5년 동안 10,000원이 되도록 할인상각한다. 마지막 정산 시 실제 지급액과 충당부채 장부금액의 차이는 그 시점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구축물의 최초 인식금액은 본체 원가 100,000원에 원상회복의무 현재가치 7,000원을 더한 107,000원이다. 자산복구의무는 자산 원가에 포함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X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원가의 명목금액 10,000원과 현재가치 7,000원의 차이 3,000원은 5년 동안 금융수익이 아니라 금융비용으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는 시간이 지나며 할인효과가 풀려 장부금액이 증가하므로 이자비용 성격의 비용이 발생한다. 틀린 표현은 "금융수익"이고, 올바르게는 "5년 동안 금융비용으로 인식한다"이다.

③ O
구축물 취득시점에는 원상회복의무 현재가치 7,000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미래에 지급할 현금유출이 현재의무로 존재하므로 부채 인식이 맞다.

④ O
실제 원상회복 시 소요 금액이 충당부채 최종 장부금액 10,000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정산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실제 지급액이 더 적으면 그 차이는 이익이 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현재가치와 미래지급액의 차이를 수익으로 착각하는 점이다. 복구충당부채는 시간이 지나면 부채가 커지는 구조이므로 할인상각분은 수익이 아니라 금융비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구의무 문제는 "현재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잡는지", "현재가치와 미래지급액 차이가 비용인지 수익인지", "실제 정산액과 충당부채 차이를 마지막에 손익 처리하는지"의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복구의무는 현재가치로 자산+충당부채, 할인풀림은 금융비용, 최종 정산차이는 손익이다.

NoteBase

문 12. (주)서울은 2016년 초에 발행된 (주)한양의 사채 (액면금액 ₩1,000,000)를 ₩946,8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가 ₩960,000일 때, (주)서울이 인식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얼마인가? (단,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연 4%로 매년 말에 지급되는 조건이며, 유효이자율은 연 6%이다.)

① 평가이익 ₩13,200

② 평가이익 ₩16,808

③ 평가손실 ₩3,608

④ 평가손실 ₩5,80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사채의 연말 상각후원가를 유효이자율법으로 구한 뒤, 이를 공정가치와 비교하여 평가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액면금액 1,000,000원, 취득원가 946,800원, 표시이자율 연 4%, 유효이자율 연 6%, 연말 공정가치 96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16년 말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이다.
주의할 조건: 평가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연말 상각후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사용할 공식

사용할 원리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 계산과 공정가치 비교이다.
기말 상각후원가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수익 - 현금이자수취
평가손익 = 기말 공정가치 - 기말 상각후원가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사채를 할인취득했으므로 표시이자와 유효이자의 차이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한 뒤, 그 상각후원가를 공정가치와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현금이자는 액면금액 1,000,000원에 표시이자율 4%를 적용하여 40,000원이다.
2. 유효이자수익은 취득원가 946,800원에 유효이자율 6%를 적용하여 56,808원이다.
3.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56,808원 - 40,000원 = 16,808원이다.
4. 연말 상각후원가는 946,800원 + 16,808원 = 963,608원이다.
5. 평가손익은 960,000원 - 963,608원 = -3,608원이다. 따라서 평가손실 3,608원을 인식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 '평가이익 13,200원'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13,200원은 공정가치 960,000원에서 취득원가 946,800원을 단순 차감한 값일 뿐이며, 평가기준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연말 상각후원가 963,608원이다.
- 올바르게는 '평가손실 3,608원'이다.

② X
- '평가이익 16,808원'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16,808원은 유효이자수익과 현금이자의 차이로서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지 평가이익이 아니다.
- 올바르게는 상각후원가가 963,608원으로 늘어난 뒤, 이를 공정가치 960,000원과 비교하여 '평가손실 3,608원'을 인식한다.

③ O
-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연말 상각후원가는 963,608원이고 공정가치는 960,000원이므로 3,608원만큼 공정가치가 낮다.
- 따라서 '평가손실 3,608원'이 맞다.

④ X
- '평가손실 5,808원'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평가손익은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만 반영하므로 손실액은 5,808원이 아니라 3,608원이다.
- 올바르게는 '평가손실 3,608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공정가치와 취득원가를 바로 비교하거나,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6,808원을 곧바로 평가이익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채무상품은 먼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를 만든 뒤 그 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권형 금융자산 평가 문제는 현금이자 계산, 유효이자수익 계산, 상각후원가 산정, 공정가치 비교의 순서로 판단한다. 할인취득이면 유효이자수익이 현금이자보다 커서 장부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먼저 잡으면 계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 계산 후 공정가치와 비교'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3. (주)서울은 2016년 초에 ₩100,000에 3층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주)서울은 보유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서울이 2016년 초에 취득한 임대목적 건물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16년에 건물에 대해서 인식할 총비용은 얼마인가? (단, 2016년 말 현재 건물의 공정가치는 ₩94,000이다.)

① ₩0

② ₩4,000

③ ₩6,000

④ ₩1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100,000원, 2016년 말 공정가치 94,000원.
구해야 할 값: 2016년에 건물과 관련해 인식할 총비용.
주의할 조건: 임대목적 건물이므로 투자부동산이며,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인식할 총비용 = 기말 공정가치 하락분 = 100,000원 - 94,000원 = 6,000원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공정가치모형에서는 투자부동산을 매기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취득 시점 장부금액은 100,000원이다.
2.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3. 2016년 말 공정가치가 94,000원이므로 공정가치 하락액은 6,000원이다.
4. 따라서 2016년에 인식할 총비용은 6,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0원은 공정가치 하락을 전혀 비용으로 보지 않은 값이다. 공정가치가 100,000원에서 94,000원으로 하락했으므로 6,000원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비용이 없다'이고, 올바르게는 '공정가치 하락 6,000원을 비용으로 인식한다'이다.
② X: 4,000원은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90,000원과 공정가치 94,000원의 차이만 본 값이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비교기준이 90,000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90,000원에서 94,000원까지의 차이만 비용이다'이고, 올바르게는 '100,000원에서 94,000원으로 하락한 6,000원이 비용이다'이다.
③ O: 취득 시점 장부금액 100,000원에서 기말 공정가치 94,000원으로 6,000원 하락했으므로 당기손익에 비용 6,000원을 인식한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 대신 공정가치 변동손실을 바로 반영한다.
④ X: 10,000원은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의 정액법 감가상각비이다. 이는 원가모형에서의 비용이며 공정가치모형의 총비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감가상각비 10,000원을 인식한다'이고, 올바르게는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 공정가치 하락 6,000원을 인식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을 섞으면 ②나 ④로 흔들린다. 특히 '보유하는 모든 건물은 정액법 감가상각'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끌고 오면 안 되고, 문제는 '이 임대목적 건물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를 다시 묻고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대목적 건물이 나오면 먼저 투자부동산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모형이 공정가치모형이면 감가상각을 지우고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공정가치의 차이를 바로 손익으로 잡는다.

암기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 대신 공정가치 변동손익을 인식한다.

NoteBase

문 14. (주)서울은 화장품 제조회사로 화장품을 담는 용기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화장품 용기 생산량은 매년 1,000개이며, 1,000개 조업도 수준 하에서 화장품 용기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아래의 표와 같다. 그런데 외부의 용기 생산업자가 화장품 용기 1,000개를 개당 ₩95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주)서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화장품 용기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연 ₩10,000에 다른 회사에 임대할 수 있다. 한편, 화장품 용기를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고정제조간접원가의 50%는 계속해서 발생된다. (주)서울이 외부공급업자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연간 이익은 얼마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겠는가?

구분	단위당 원가
직접재료원가	₩30
직접노무원가	20
변동제조간접원가	10
고정제조간접원가	40
화장품 용기의 단위당 제조원가	₩100

① ₩5,000 증가

② ₩5,000 감소

③ ₩10,000 증가

④ ₩10,000 감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주구입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원가와 기회이익을 반영하여 연간이익 증감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연간 생산량 1,000개, 외주구입 단가 95원, 설비 임대수익 10,000원이다.
자체생산 단위원가: 직접재료원가 30원, 직접노무원가 2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10원, 고정제조간접원가 40원이다.
주의할 조건: 고정제조간접원가의 50%만 회피 가능하므로 나머지 50%는 외주구입 시에도 계속 발생한다.

사용할 공식

관련원가 비교식은 다음과 같다.
자체생산 관련원가 = 회피가능원가
외주구입 관련원가 = 구입원가 - 기회이익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의사결정에서는 이미 발생했거나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제외하고, 대안에 따라 달라지는 원가와 수익만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자체생산 시 회피가능한 원가를 계산한다.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전부 관련원가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 40원 중 50%만 회피 가능하므로 개당 20원이 관련원가이다.
2. 따라서 자체생산 관련원가는 (30 + 20 + 10 + 20) × 1,000 = 80,000원이다.
3. 외주구입 관련원가는 95 × 1,000 = 95,000원이고, 설비를 임대하면 10,000원의 기회이익이 생기므로 순관련원가는 95,000 - 10,000 = 85,000원이다.
4. 외주구입 관련원가가 자체생산 관련원가보다 85,000 - 80,000 = 5,000원 크므로 외주구입을 수락하면 연간이익은 5,000원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5,000 증가'가 틀린 표현이다. 관련원가를 비교하면 외주구입안이 5,000원 더 불리하므로 올바르게는 '5,000 감소'이다.
② O: 자체생산 관련원가 80,000원과 외주구입 관련원가 85,000원을 비교하면 외주구입 시 비용이 5,000원 더 커진다. 따라서 연간이익은 5,000원 감소한다.
③ X: '10,000 증가'가 틀린 표현이다. 설비 임대수익 10,000원만 따로 보면 유리해 보이지만, 외주구입 대금 95,000원과 자체생산 관련원가 80,000원을 함께 비교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5,000 감소'이다.
④ X: '10,000 감소'가 틀린 표현이다. 문제 조건상 관련원가 차이는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며, 올바르게는 '5,000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총원가 100,000원을 그대로 비교하면 오답이 된다.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절반은 계속 발생하므로 제외해야 하고, 외주구입 시 설비 임대수익 10,000원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주구입 의사결정은 먼저 회피가능원가만 골라 자체생산 관련원가를 만든 뒤, 외주구입 대금에서 기회이익을 차감하여 비교하면 된다. 회피 불가능한 고정원가는 양쪽에 공통이므로 의사결정에서 제외된다.

암기 포인트

외주구입 판단은 총원가가 아니라 관련원가와 기회이익으로 비교한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당기 중에 발생한 (주)서울의 자기주식 관련거래이다. 12월 31일에 (주)서울이 인식해야 할 감자차손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3월 1일: (주)서울이 발행한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2,000) 중 100주를 주당 ₩5,000에 취득하였다.
6월 1일: 자기주식 중 30주를 주당 ₩7,000에 매각하였다.
8월 1일: 자기주식 중 30주를 주당 ₩2,000에 매각하였다.
12월 1일: 자기주식 중 나머지 40주를 소각하였다.

① 감자차손: ₩12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
② 감자차손: ₩15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
③ 감자차손: ₩16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
④ 감자차손: ₩16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4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기주식의 처분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순처분손익을 계산하고, 소각은 잔여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와 액면금액의 차이로 감자차손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3월 1일 취득: 100주 × 5,000원 = 500,000원
6월 1일 처분: 30주 × 7,000원, 해당 취득원가 150,000원
8월 1일 처분: 30주 × 2,000원, 해당 취득원가 150,000원
12월 1일 소각: 잔여 40주, 취득원가 200,000원, 액면금액 40주 × 2,000원 = 80,000원

사용할 공식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처분가액과 처분원가를 비교해 계산한다. 같은 기간에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이 함께 발생하면 먼저 상계한 순액을 본다.
감자차손은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에서 소각되는 자본금 상당액인 액면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6월 1일 자기주식처분이익은 30주 × 7, 000 − 5, 000 = 60,000원이다.
2. 8월 1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30주 × 5, 000 − 2, 000 = 90,000원이다.
3. 연중 자기주식 처분 순액은 손실 90,000원에서 앞선 이익 60,000원을 상계한 30,000원 손실이다.
4. 12월 1일 소각한 40주의 취득원가는 40주 × 5,000원 = 200,000원이다.
5. 소각되는 자본금 상당액은 40주 × 2,000원 = 80,000원이다.
6. 감자차손은 200,000원 - 80,000원 = 12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감자차손 120,000원과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을 모두 맞게 제시한 선지이다.

② X
'감자차손 150,000원'이 틀렸다. 소각 대상은 잔여 40주이므로 감자차손은 40주의 취득원가 200,000원에서 액면금액 80,000원을 뺀 120,000원이다.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은 맞다. 올바르게는 '감자차손 12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이다.

③ X
'감자차손 160,000원'과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원'이 모두 틀렸다. 감자차손은 120,000원이고, 자기주식처분손실은 8월 1일 손실 90,000원에서 6월 1일 처분이익 60,000원을 상계한 30,000원이다. 올바르게는 '감자차손 12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이다.

④ X
'감자차손 160,000원'이 틀렸고 '자기주식처분손실 40,000원'도 틀렸다. 감자차손은 잔여 40주의 취득원가와 액면금액 차이인 120,000원이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을 상계한 30,000원이다. 올바르게는 '감자차손 12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자기주식처분손실을 8월 1일의 90,000원만 보고 계산하거나, 감자차손을 잔여 40주의 액면금액 80,000원을 빼지 않고 과대계상하기 쉽다. 처분손익은 연중 처분거래를 순액으로 보고, 감자차손은 소각 시점의 잔여주식만 따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주식 문제는 먼저 취득주식 수를 처분분과 소각분으로 나눈다. 처분분은 처분가액과 취득원가를 비교해 순처분손익을 구하고, 소각분은 남은 주식의 취득원가와 액면금액을 비교해 감자차손을 구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자기주식 처분은 취득원가 기준의 순처분손익으로 보고, 자기주식 소각은 취득원가와 액면금액의 차이만큼 감자차손이 생긴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주)서울의 은행계정 조정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조정 전 은행측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조정 전 (주)서울의 잔액은 ₩1,060,000이다.)

- 예금이자 ₩50,000이 (주)서울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 은행이 부도처리한 ₩240,000의 수표가 (주)서울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 (주)서울에 통지되지 않은 거래처 매출채권 추심액은 ₩130,000이다.
- (주)서울이 입금한 ₩60,000이 은행에서 입금 처리되지 않았다.
- (주)서울이 거래처에 발행한 수표 중 ₩160,000이 인출되지 않았다.

① ₩1,000,000

② ₩1,060,000

③ ₩1,080,000

④ ₩1,1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사측 미기록 항목으로 조정 후 공통잔액을 만든 뒤, 은행측 미조정 항목을 역산하여 조정 전 은행측 잔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조정 전 회사측 잔액 1,060,000원
회사측 조정 항목: 예금이자 50,000원 가산, 부도수표 240,000원 차감, 매출채권 추심액 130,000원 가산
은행측 조정 항목: 미입금 60,000원 가산, 미인출수표 160,000원 차감
구해야 할 값: 조정 전 은행측 잔액

사용할 공식

조정 후 공통잔액 = 조정 전 회사측 잔액 + 회사측 가산항목 - 회사측 차감항목
조정 후 공통잔액 = 조정 전 은행측 잔액 + 은행측 가산항목 - 은행측 차감항목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은행계정조정에서 회사와 은행의 조정 후 잔액이 같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회사측에서 조정 후 공통잔액을 구한다.
1,060,000 + 50,000 - 240,000 + 130,000 = 1,000,000원
2. 은행측 식에 대입한다.
1,000,000 = 조정 전 은행측 잔액 + 60,000 - 160,000
3. 정리하면 조정 전 은행측 잔액 = 1,000,000 - 60,000 + 160,000 = 1,10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000,000원은 조정 전 은행측 잔액이 아니라 회사측 미기록 항목을 반영한 조정 후 공통잔액이다. 틀린 표현은 '조정 전 은행측 잔액'이며 올바르게는 '조정 후 공통잔액은 1,000,000원이다.'이다.
② X: 1,060,000원은 문제에서 직접 준 조정 전 회사측 잔액이다. 은행측 잔액을 묻는 문제이므로 그대로 답이 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조정 전 회사측 잔액은 1,060,000원이다.'이다.
③ X: 1,080,000원은 회사측 항목과 은행측 항목을 섞어 계산하거나 조정항목의 가감 방향을 잘못 잡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올바르게는 조정 후 공통잔액 1,000,000원에서 미입금 60,000원을 빼고 미인출수표 160,000원을 더해 1,100,000원을 구해야 한다.
④ O: 조정 후 공통잔액이 1,000,000원이고, 은행측에서는 미입금 60,000원을 더하고 미인출수표 160,000원을 빼야 하므로 조정 전 은행측 잔액은 1,1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예금이자, 부도수표, 매출채권 추심액은 회사 장부 미기록 항목인데 이를 은행측 조정항목으로 섞기 쉽다. 또 미입금은 은행잔액에 더하는 항목, 미인출수표는 은행잔액에서 빼는 항목인데 역산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실수가 많이 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은행계정조정 문제는 먼저 회사측 미기록 항목만 반영하여 조정 후 공통잔액을 만든 다음, 은행측 미조정 항목을 이용해 미조정 은행잔액을 역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은행계정조정은 '회사측으로 공통잔액 확정, 은행측은 그 잔액에 맞춰 역산'의 구조이다.

NoteBase

문 17. (주)서울은 2016년 1월 1일 회사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장부금액 ₩1,000,000, 공정가치 ₩1,600,000)를 (주)한양리스에 ₩1,700,000에 판매하면서 이와 동시에 동 기계장치를 운용리스하는 조건으로 5년 동안 매년 말 ₩100,000씩 지급하는 운용리스계약을 (주)한양리스와 체결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판매 및 리스와 관련하여 (주)서울이 2016년 1월 1일에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 ₩0

② 유형자산처분이익: ₩600,000,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③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 ₩600,000

④ 유형자산처분이익: ₩700,000,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 ₩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운용리스로 재리스하는 판매후리스거래에서 판매가액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면 공정가치 초과분은 즉시 이익으로 잡지 않고 이연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장부금액은 1,000,000원이다.
공정가치는 1,600,000원이다.
판매가액은 1,700,000원이다.
동시에 운용리스로 재리스하므로 공정가치까지의 이익만 즉시 인식하고, 공정가치 초과분은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사용할 공식

즉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이다.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은 판매가액이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운용리스 판매후리스거래에서 정상가격인 공정가치 범위의 이익만 당기에 인식하고, 초과 판매분은 미래 기간에 배분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공정가치 기준 즉시 인식 이익은 1,600,000원 - 1,000,000원 = 600,000원이다.
2. 판매가액 초과분은 1,700,000원 - 1,600,000원 = 100,000원이다.
3.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600,000원이고,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은 10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유형자산처분이익을 100,000원으로 본 것이 틀렸다. 100,000원은 판매가액이 공정가치를 초과한 부분이므로 즉시 이익이 아니라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틀린 표현은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유형자산처분이익 600,000원,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원'이다.
2번: O. 공정가치 1,600,000원과 장부금액 1,000,000원의 차이 600,000원을 즉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판매가액 1,700,000원이 공정가치를 100,000원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은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3번: X. 600,000원은 이연할 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 범위에서 즉시 인식할 이익이다. 틀린 표현은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 60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은 100,000원'이다.
4번: X. 총 판매차익 700,000원을 전부 즉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잡은 것이 틀렸다. 공정가치 초과 100,000원은 당기이익이 아니라 이연한다. 틀린 표현은 '유형자산처분이익 700,000원, 이연 0원'이고, 올바르게는 '유형자산처분이익 600,000원,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총 판매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700,000원을 전부 당기 처분이익으로 인식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운용리스 판매후리스거래에서는 공정가치 초과분 100,000원을 즉시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판매후리스 문항은 먼저 리스 유형이 운용리스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판매가액과 공정가치의 관계를 본다. 그 다음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즉시 이익으로, 판매가액의 공정가치 초과분은 이연항목으로 분리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운용리스 판매후리스는 공정가치까지는 즉시 이익, 공정가치 초과분은 이연이익으로 본다.

NoteBase

문 18. 다음 중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면 그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에서 차감한다.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③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그 의무의 이행에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④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현재가치 평가 시 적용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충당부채의 측정 원칙과 관련 자산처분이익의 처리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으로 발생한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추정한 부채이다. 충당부채 측정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며, 자산처분이익 같은 미래의 별도 이익은 차감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표현은 "그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에서 차감한다"이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만으로 측정하므로 예상 자산처분이익은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산처분이익은 충당부채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인식한다.
2번 O: 충당부채 금액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전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이는 충당부채 측정의 기본 원칙이다.
3번 O: 불법적인 환경오염이 이미 발생했다면 기업에는 법적 또는 의제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미래 영업을 계속할지와 무관하게 환경정화에 따른 자원 유출 가능성이 있으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4번 O: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면 충당부채는 예상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이때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부채의 특유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평가를 반영한 세전 할인율이다.

오답 포인트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미래에 회수되거나 처분될 금액도 함께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1번에 넘어가기 쉽다. 충당부채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만 보는 항목이고, 관련 자산의 처분이익은 별도 문제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충당부채 문제는 먼저 과거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생겼는지 본다. 그다음 금액은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선의 추정치인지,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면 현재가치 측정인지, 자산처분이익처럼 별도의 미래이익을 섞어 넣지는 않았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의 최선추정치이고, 자산처분이익은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

②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④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가증권의 분류, 취득원가 산정, 평가기준, 감액손실 인식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
취득원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평가기준: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가 기준이고,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모두 취득원가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손상처리: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고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으면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규칙상 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 분류기준 자체를 묻는 기본 문장이라 옳다.
2번: O.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취득시점의 원가 산정 원칙을 그대로 적은 문장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표현이다. 채무증권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또한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등은 공정가액 평가가 가능한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므로, 모든 유가증권을 일률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고 보면 틀린다.
4번: O.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손상 인식 요건과 처리방법을 바르게 적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3번은 "유가증권은 전부 취득원가 평가"라는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특히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평가와 투자목적 증권의 공정가액 평가 가능성을 빼먹으면 쉽게 속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가증권 문제는 먼저 분류를 보고, 다음으로 취득원가 산정 규정을 확인한 뒤, 평가단계에서는 채무증권인지, 투자목적인지, 손상상황인지 순서대로 나누어 판단한다. "모두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문장이 나오면 예외 규정이 있는지 먼저 의심하는 것이 맞다.

암기 포인트

분류는 단기·장기, 취득은 매입가액+부대비용, 채무증권 평가는 상각후취득원가, 손상은 감액손실 인식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회계변경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

② 금융자산에 대한 대손가능성 추정의 변경

③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

④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대한 판단 변경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 변경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계정책 변경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적용하는 회계처리 원칙이나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회계추정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자산·부채 금액이나 기간배분액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재고자산 단가결정방법은 회계처리 방법 자체이므로 회계정책의 영역이고, 감가상각방법·대손가능성·재고자산 진부화 판단은 추정의 영역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꾸는 것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형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경우이므로 회계추정 변경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이 선지가 '성격이 다른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올바르게는 ①은 ②, ④와 같은 회계추정 변경의 예이다.

② X
금융자산의 대손가능성 추정을 바꾸는 것은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정치 수정이므로 회계추정 변경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이 선지가 다른 성격의 회계변경이라는 취지이다. 올바르게는 ②는 회계추정 변경의 예이다.

③ O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바꾸는 것은 재고 원가를 배분하는 회계처리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계추정 변경인 ①, ②, ④와 성격이 다른 하나가 된다.

④ X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대한 판단 변경은 순실현가능가치나 평가손실 인식과 관련된 추정치 수정이므로 회계추정 변경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이 선지가 다른 성격의 회계변경이라는 취지이다. 올바르게는 ④는 회계추정 변경의 예이다.

오답 포인트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회계정책 변경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감가상각방법은 고정자산의 효익 소비형태에 대한 재평가를 반영하므로 회계추정 변경으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회계처리 방법 자체를 바꾸는지, 아니면 기존 방법 안에서 추정치만 고치는지를 먼저 본다. 방법 자체가 바뀌면 회계정책 변경이고, 대손가능성·진부화·감가상각방법처럼 추정이나 판단이 달라지면 회계추정 변경이다.

암기 포인트

재고 단가결정방법은 정책이고, 감가상각방법·대손·진부화는 추정이다.

NoteBase